

학교폭력 명상이 답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교과부 장관도 언급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교폭력 관련법이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상 연령이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수위도 높아져 수범이 잔인해져 악화일로이다. 폭력 동기도 '그냥 장난'인 경우가 많다.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인성 파괴가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많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명상과 템플스테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활용해 불교시설에서 청소년들을 교육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 산재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들을 학교폭력 관련 서비스별로 나누고 불교 명상프로그램 운용에 기반한 자체 프로세스를 만들어 교육용 시스템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립학교 학교폭력 안전지대 학교폭력 불교명상 효과 입증 템플스테이 등 인성교육 필요 생명존중 가치관 심을 때

신순갑 사무총장은 "명상프로그램을 갖고 각 학급별 1인씩 어른이 아닌 중고등학생 또래상담자를 활용한다면 학교폭력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생간 상담 외에 재가신도를 활용한다면 이들의 신행활동을 통해 피해자 부모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는 방법도 제안했다.

신순갑 사무총장의 발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를 치유하는 데에는 대화를 통한 소통, 상생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학교폭력 해법이 불교명상에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명상이나 템플스테이 등 불교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불교계의 실천은 이미 진행 중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청소년 내 고향 찾기 의지나눔' 프로그램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의지나눔 사업은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소외계층 청소년들과 만나 직업의 세계를 들려주고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청소년 템플스테이, 문화체험 등 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불교계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조계종단 나아가 범불교계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젊은 불자·출가자 감소 등 불교계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회의라는 견해도 있다.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중생교화의 방편이며, 인재불사이다.

이논은 기자 oas11983@hyunbul.com



부처님을 따르겠습니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2월 23일 직지사(주지 성용). 104명의 행자들이 차가운 아침 안개 속에 뜨거운 입김을 쏟아내며 부처님을 부른다. 목탁소리 한 번에 땅 한 번 끌어안고 옮기는 세 걸음은 멀고도 먼 길이다. 길 위에 선 행자들이 몸과 마음을 씻는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이날의 삼보일배는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용)이 11~25일 김천 직지사(주지 성용)에서 실시한 제42기 사미·사미니 수계교육 과정 중의 하나로, 부처님출가절(음.2.8)을 앞두고 있어 행자들의 삼보일배가 더욱 간절한 발원으로 다가왔다. 25일 회향식에서 남행자 64명, 여행자 40명이 사미·사미니계를 받았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중국은 티베트 탄압 중단하라”

조계종 중앙총회 상임분과위 성명 발표

“중국은 소신을 단행한 티베트인들의 신병을 양도하고, 주둔 군대의 조속한 철수, 양심수 석방, 승려에 대한 총성 강요 행위 및 강제 이주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티베트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한 스님들의 소신이 잇따르고 있다. 2008~2012년 2월 현재까지 24명의 티베트 승려와 재가자가 소신 공양을 한 가운데, 조계종 중앙총회 상임분과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티베트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국당국의 탄압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소신을 단행한 이들의 신병 양도를 비롯하여 주둔 군대의 조속한 철수, 양심수 석방, 승려에 대한 총성 강요 행위 및 강제 이주 정책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상임분과위원회스님들은 티베트 탄압 중단 촉구 성명을 3월 총회에 채택토록 하고, 범불교계가 연대해 지속적으로 평화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분과위원장 대오 스님은 “속구문 선언 이후 임시중앙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중국 대사관을 향한 방문해 서한을 전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상임분과위원장은 3월 임시총회 후 중국 대사관 향의 방문을 위한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다.

교육분과위원장 범안 스님은 “집행부도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UN의 호소문도 필요하며 종단협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불교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상임분과위원회스님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티베트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준엄한 사태로 티베트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세계인과 함께 중

조동섭 · 박기범 기자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발표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Peace to our Mind, Happiness to our World)’이 결정됐다.

이 표어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가 공모를 통해 접수된 368건(198명 응모)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안호석 님(경기 김포시)이 응모한 작품이다.

봉축위원회는 “올해 봉축 표어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은 세상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의 진리로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자는 뜻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보살 정신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아 결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국경·종교 초월 ‘학교폭력 예방’

KCRP 성명서 채택

한·일 불교계 공동 화두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일 불교계는 학교폭력 해결에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7대종단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희중, 이하 KCRP)는 2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 KCRP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가정, 사회,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KCRP는 성명서에서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학교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로 확대되고 있다. 인간교육의 소중한 배움터인 학교가 병들어 아파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종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KCRP는 “학교 폭력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 극복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종교인들 각 종단 고유 예식 속에서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고양시키는 등 7대 종단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일본 아시아불교도협회(회장 이바라키 츠오키)는 21일 파라미타정

소년연합회(회장 정여)를 방문해 한·일 청소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관심사였다.

파라미타정소년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은 “최근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및 자살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파라미타는 청소년 학교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불교도협회 이바라키 츠오키 회장은 “일본도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었다. 양국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역할을 제대로 실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기범 · 이은정 기자

877호 CONTENTS

종단 화쟁위, 제주 강정마을 방문 지관 대종사 49개 봉행	2
종합 조계종 선거제도 공청회 조계종 승보공양운동	3
시방세계 국제불교학교 미주 연수	5
출가절 특집	31

諸佛菩薩 腹藏莊嚴具 (부처님 복장점안 장엄구)

복장점안이란 부처님을 조상하고, 그 내부에 여법하게 종교적 절차를 거쳐 점안을 거쳐 신앙의 대상으로 나타내게 하는 의례과정입니다. 복장의례에 관한 경전은 조선시대 재구성된 '조상경' 및 관련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총 4차례에 걸쳐 재구성된 복장의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의경전과 전통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장장엄 의례 및 과정에 대한 이해는 그리 높지 않아 불교문화를 계승하는 견지에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유상아트에서는 가장 근래에 재편된 유점사본 조상경을 토대로 하여 후령통과 납입물목을 재정리하고, 의례까지 재현하여 본 '불복장 장엄구세트'를 스님 및 불자들에게 선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장장엄구와 관련한 여러 경전과 유점사본 조상경에서 일치되지 않고 혼돈을 보이는 오방색에 대해서 유점사본의 조상경의 대부분 물목의 색에 오보병을 맞추어 오방위의 색을 통일시켜 재현해 보았습니다. 불복장장엄구의 재현은 불복장장엄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고, 이는 한국 불교문화의 올바른 구성이라는 견지에서 이해하여 주시던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불복장장엄구의 재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세림스님과 최태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 불교문화의 올바른 계승으로 이어지기를 부처님께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6년 2월 유상아트 김명 환 합장

불복장의식 문의 010-2685-0361 불복장의식 연구소장 세림스님께서 직접어드립니다.

후령통 및 13종(65가지) 물목을 담은 물목함 물목함 세트 사이즈 (370X250X100)

후령통 펼친상태 후령통 포장상태

금합 (은합)
후령통 및 오방경 팔연연화, 사리함 양면원경 오보병 등을 팔연대룡리지도 위에 펼친 전경

대 (80X210) : 금합 350만원 / 은합 300만원
중 (60X155) : 금합 300만원 / 은합 250만원
소 (50X115) : 금합 190만원 / 은합 150만원

檀越波羅密多心經 經동반야심경
고려대장경의 반야심경판본입니다.
• 크 기 : 28.8cm X 14.6cm
• 재 질 : 표면처리 순금 24K
• 보급특가 : 300,000원

목판반야심경
• 크 기 : 28.8cm X 14.6cm
• 재 질 : 원목무늬, 원목좌대
• 보급특가 : 150,000원

한글반야심경
• 크 기 : 28.8cm X 14.6cm
• 재 질 : 원목무늬, 원목좌대
• 보급특가 : 150,000원

신묘장구대다라니(연화바탕)
• 크 기 : 직경 27cm
• 재 질 : 원목무늬좌대
• 보급특가 : 150,000원

* 법보시용, 감사패, 공로패 대응으로 가치 충분합니다. (단체주문환영)
* 좌대 (받침대)에 24K금박으로 원하시는 글씨를 새겨드립니다.